

# 4차선이 갑자기 2차선으로... 해남 '황당도로'

### 삼 학동리 일대 도시계획-국도 도로폭 서로 달라... 사고 위험

4차선이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는 황당한 도로 때문에 해남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차선이 갑작스럽게 좁아지면, 운전자가 충분히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차선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하지만 이 도로는 칼로 잘라낸 듯 갑자기 차선이 없어져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사진 참고〉

11일 해남군청에서 열린 박준영 지사와 도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해남읍 학동리 일대의 도로 개선을 건의했다.

이곳은 해남읍 도시계획도로(4차로·20m)와 국도 18호선(2차로·10m)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 도로 폭이 달라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과거 국도 18호선에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면서 완화구간을 설계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통상 차선이 갑소하면 곡선 형태로 조금씩 줄어들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20m 도로를 10m 도로에 붙이다 보니, 도로 폭 절반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는 해남군 관련 부서 간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국도를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발주하면서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 관계자는 "사업 부서와 예산이 다르다 보니, 충분히 논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 도로는 마산면, 산이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해남에서 목포로 가는 차량 통행도 잦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박준영 지사에게 건의했다.



이제 전남도는 "해당 도로의 관리 청인 해남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사고 위험이 커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어린 연어 14만마리 섬진강 방류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오는 14일 구례군 간전면 섬진강어류생태관 앞 섬진강 수계 생태하천인 수변공원에서 제16회 어린 연어 방류행사를 한다. 이번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총 14만 마리로 지난해 12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에서 채란한 알을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부화해 관리 사육한 것으로 크기는 5cm 내외이다. 이 치어는 섬진강하구에서 1~2개월 머물고서 바다로 내려가 배회해와 북태평양으로 이동, 3~5년 동안 성장한 후 고향인 섬진강으로 돌아

온다. 전남도가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15년간) 방류한 연어는 484만 마리로 섬진강에 돌아온 연어는 1780 마리다. 전남도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지난 2008년 3월 개관한 국내 최대 민물고기 전시관으로 지금까지 34만2000여 명이 찾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11일 "북태평양 소하성어류위원회의 연어 모친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섬진강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 관광자원화를 위해 연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꽃피는 순천 '그린게릴라'

### 정원박람회 D-40일 기념 발대식 가져

### 36개 팀 172명 참여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D-40일 기념해 11일 오후 동천 수변공원에서 '그린게릴라' 발대식을 가졌다. 원예기술을 익힌 순천시민들로 구성된 그린게릴라는 공공디자인을 가미한 정원 및 스토리를 곁들여 박람회 개최 전 도심 곳곳에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36개 팀 172명이 참가해 재활용 정원 전시, 2013

개의 포켓정원 씨앗 릴레이 및 수변공원 내 '한평정원'을 직접 조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발대식을 계기로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하나의 포켓정원이 2013개의 정원으로 꽃피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11일 오후 순천 동천 수변공원에서 조종훈 순천시장과 시민대표 3명이 정원박람회 D-40일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석선혜 스님 중국 다예도구 등 141점

# 보성 한국차 박물관에 기증

보성의 한국차(茶)박물관이 차 문화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면서 차와 관련된 다양한 작품 기증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한국차학회 부회장이며 성신여대 예절다도학과 교수를 역임한 석선혜 스님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직접 수집한 다예도구를 최근 한국차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다예도구는 스님이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수집한 것으로 대만 우롱차, 말리화차, 용정차, 홍차, 보이차 등을 마실 때 쓰이는 다예도구와 물항아리 등 총 141점에 이른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이번 기증으로 한국차박물관은 중국의 6대 다예 도구를 모두 전시하게 돼 관람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박물관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차박물관 기증품은 438점에 달한다. 보성군은 앞으로도 기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시관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스님은 1979년부터 이 지역에서 차를 만들며 주변 농가에 차 만드는 법을 전수하는데 힘썼다"며 "기증품들을 한국차문화 발전에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예향 전남, 미래 예술인재 키운다

### 전남도, 838개 초중고에 국악 등 8개분야 예술강사 배치

전남도는 올해 42억원을 들여 도내 초중고 838개 학교에 국악, 연극, 만화 등 8개 분야의 예술 강사 408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한 예술강사 배치사업은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등 모두 8개 분야다. 예술강사는 각 학교에서 선택한 예술분야 기본 교과 외에도 창의적 체험수업이나 토요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진행된다. 분야별로는 국악분야의 경우 전남도 국악협회가 주관단체가 돼 10억원의 사업비로 339개교에 134명의 예

술강사를 배치한다. 연극, 만화, 사진 등 국악을 제외한 7개 분야는 전남문화예술회사재단이 주관이 돼 32억 원의 사업비로 499개교에 274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한다. 예술강사 파견 사업은 교육을 통해 서양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훌륭한 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켜나가는 한편 공부에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우물증,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이 연극수업에 참여하면 서부터 자신이 맡은 역할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강사는 연평균 300~470시간 수업에 참여하며 급여는 1200만~1900만원 가량이다. 전남도는 청소년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문화유산 전승 발전 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경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학생 개인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 바른 인성 함양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인터네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새 얼굴

### "맞춤식 토론으로 꿈·재능 키울것"

### 이홍상 완도교육장

"꿈과 재능을 가꾸는 행복한 완도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완도교육지원청 이홍상(59) 교육장은 지역인재가 미래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바른 품성과 실력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생활에 있어서 나눔과 배려를 배우도록 하고 맞춤형 토론 수업을 정착시켜 학력과 재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실

시할 방침이다. 장성 출신인 그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보성 봉명초교에서 교직을 시작했으며 남다른 열정으로 연구학교 장학자료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공무원(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가족으로는 권역희(58)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서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다도해가 한눈에... 진도 도리산에 전망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진도군 조도면 도리산에 150여 개의 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조감대)가 건립된다. 진도군이 34억원을 들여 내년 준공 예정인 이 전망대는 478㎡ 규모의 전망데크, 그늘막, 벤치 등을 갖춘다. 전망대가 건립되면 크고 작은 섬이 세 때처럼 모여 있어 조도

(鳥島)라고 이름이 붙여진 150여 개의 섬을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 인근에는 돈대산, 1909년 조성한 하조도 등대 등이 있다. 이동진 군수는 11일 "전망대를 남만과 즐거움, 이야기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15일간 백두산악이 드리는 최고의 봄맞이 선물

의류전품목! 무조건 50%

주)백두산악 무등산점 062-236-1187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이앤지 방수·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바닥재 전문생산업체 062-367-7755